

중국이 꿈꾸는 ‘중화제국주의(Cino centrism)’

— 영화 <백은제국> 이미지를 중심으로

김영미*

목 차

1. 중국이 ‘꿈’을 꾸기까지
2. 중국 꿈들의 이미지화
 - (1) 은색 세계
 - (2) 돈과 땅
 - (3) 타자인식과 전환
3. 꿈- 이미지화 - 실체들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주목받는 중국의 국제 금융 질서에 대해 주목한다. 이듬해인 2009년에는 새로운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영화 <백은제국>을 통해 매우 응축적이고 은유적으로 이미지화되었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이미지들은 은본위제를 상징하는 은색 색채, 청 제국을 상징하는 폐쇄적 형태의 네모난 사합원 구조적 틀, 유혹적으로 다가오는 서양으로 대변되는 여자와 같은 상징들이 가득하다. 2012년 시진핑은 ‘중국몽’을 통해 이러한 이미지들이 국가적으로 매꾸어갈 중국적 시간 가치라는 것을 공식화한다. 영화 <백은제국>은 마치 중국이 꿈을 꾸기 전에 이루어진 정말 꿈같은 이미지리한 작업들의 총체이다. 그곳에는 중국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겠다는 뿌리 깊은 ‘중화제국주의’를 드러내고 있다.

* 세종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학과/만화애니메이션학과 조교수

키워드: 중화제국주의, 백은제국, 은본위제, 중국몽, 유교 이데올로기, 법치국가

1. 중국이 ‘꿈’을 꾸기까지

영화 <백은제국(Empire Of Silver)>(2009)은 청대 함풍, 광서(咸丰,光緒)년 간 지금의 산시(山西)성에 해당하는 ‘진(晋)’ 상인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여기서 나오는 ‘진(晋)’상인들은 청대 중요한 경제상충부를 담당한 계급들로, 실질적으로 청대의 가장 큰 경제 근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진’이라고 하는 지리적 위치가 현재 중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한 가운데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진은 중화문명 발원지 가운데 하나라고 여겨지는 곳이며, 현대적 의미의 민족국가(Nation state)로서 중국이 발명해낸 ‘한족’의 뿌리 깊은 정서적 고향이기도 하다. 지리적으로 중국의 심장부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이곳을 영화화하는 것은 실상 중국이 세상의 ‘중심’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다.

영화 <백은제국>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강(康)’씨 집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흥망성쇠이다. 이 서사는 청 제국이라는 커다란 대제국카테고리가 있고, 그 속으로 들어가 컨텍스트적으로 강씨 집안을 소제국으로 삼아 이 두가지 카테고리를 하나의 ‘민족국가’라는 트랙위로 포개는 형식을 취한다. 영화 서사에서 강씨 집안은 염상인으로, 지역 상회의 우두머리이자 은을 유통시키는 지역 금융권 최고 권력자로 등장한다. 즉 강씨 집안은 청대 한 지방의 금융 지배권을 가진 작은 ‘제국’이다. 하지만 이 집안은 청 제국으로부터 그 재산권을 부여받지는 못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청대 지방의 부유한 상인 계급이 청나라 정부와 연계성을 가지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영화에서는 그 말미에 새로 태어난 남자아기로 미래를 열어둬으로써 강씨 집안의 부는 계속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화 <백은제국>의 서사 중심은 ‘한 집안’이다. 하지만 ‘집’으로 출발하여 청대 제국까지

사고를 넓히는 방식은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고대 중국 유교 카테고리과 가치관을 확인시키는 작업으로 읽힌다. 물론 영화 속 시간 배경이 되는 청대는 곧 '현재 중국'과 연결되는 '중국적인 것'의 실체이기도 하다.

영화가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인 2008년은 전 세계적으로 리만 브라더스(Lehman Brothers Holdings Inc.) 기업이 파산을 신청하면서 미국 금융이 흔들리기 시작하던 때였다. 마틴 자크는 이 시기를 두고 '미국위주의 신자유주의



그림 1 <Time>, Person of the Year, 2009

의 정권의 종말을 알리는 것'이라고 파악하고, 중국이 중심이 되어 세계 담론이 재구성될 것을 예견했다¹⁾. 이듬해인 2009년에는 <타임지(Time)>에서 2009년의 인물로 무명의 중국인 여성 노동자들을 선정하였다. 여기에 덧붙여진 해설은 “중국 공장 근처에서 우리는 세계의 경제 회복

을 이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을 만났다.”이다²⁾.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금융의 담론을 새롭게 구성해 갈 구원자들은 바로 중국의 무명 여성 노동자였던 셈이다. 이러한 2008년 당시 실제적 상황은 영화 <백은제국>이 그려내는 청말의 남성으로 이어지는 가부장제 사회와 매우 대비된다. 또한 영화 말미에 새 주역으로 남자아이 ‘하나’가 탄생되는 것과 현실에서 여성 노동자 ‘들’인 사실은 다시금 중국의 가치관들을 생각하게 만든다.

1) Martin jacques, When China Rules the World, the penguin press, 2009, p.370
한국에서는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안세민 번역, 부키, 2010 출판되었다.

2) 해당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https://content.time.com/time/specials/packages/article/0,28804,1946375_1947252_1947256,00.html

영화 <백은제국>은 남성위주의 청대사회를 이미지화하고 있지만 감독은 여성인 크리스티나 야오(Christina Yao)이다. 이 이야기는 원래 남성작가인 청이(成一)의 소설 『백은계곡(白銀谷)』(2001)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영화 내 이미지는 서사의 창작자인 남성의 시각으로 기술되어 있다. 영화전반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들은 ‘여성’ 감독의 눈을 거쳐 각색되었다는 생각을 할 수 없게 장치된다. 영화에서 보이는 이미지들은 남성서사를 그대로 ‘재현’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 말은 여성 감독의 시선이 지워진 채, 남성 서사창작자의 시선을 그대로 전체 이미지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화 <백은제국>의 이미지는 완전히 ‘남성적’이다. 이와 같이 2009년 당시 현실 속 새로운 금융 질서자로 선정된 중국의 집체적인 여자인력들은 청 제국으로 상징되는 한 성씨의 남성 가계와 매우 대비되고 있다. 그것은 수직적 구조를 강조하는 유교이데올로기에 집착하는 중국의 모습이 반영된 결과이다.

2012년 시진핑은 중국위주로 지구축은 변화한다고 희망적인 꿈을 꾸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은 중국공산당 제 18차 전국대회(中國共產黨第十八次全國代表大會)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꿈꾸며, 확실한 목표를 정한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중국이 꿈꾸는 꿈의 최종 목표로 ‘양개100년(兩個一百年)’³⁾이라는 구체적인 ‘시간 설정’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⁴⁾. 그것은 미래라는 도래하지 않은 ‘시간’을 상징하는 것이다. 어떤 국가의 최종 목표에 이와 같은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하는 것은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것은 ‘언젠가’라는 막연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로 현실과 밀착시킨다. 그것은 ‘꿈’은 이미 현실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래에 도래할 년도는 구체적인 숫자에 불과할 뿐이다. 시진핑이 2012년에 꿈꾸었던 ‘꿈’은 현실 속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3) 첫 번째 백년은 2021년까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이고, 두 번째 백년은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까지이다

4) 중국제12차전국대회 개회문 전문

<https://www.12371.cn/2013/03/17/ART11363484375738111.shtml>

실현하는 중국의 꿈(實現中華民族偉大復興的中國夢)”이라는 부분이다. 구체적인 시간성과 더불어 현실적인 꿈의 구체적 내용이 ‘부흥’에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주저앉은 것들을 ‘일으키겠다’는 매우 독특한 발상이다.

중국이 꿈꾸는 꿈의 실체는 이제 명확하다. 2021년과 2049년 두 번에 걸쳐서 중화민족이 부흥하게 된다는 것이다. 2009년에 나온 영화<백은제국>은 2012년 ‘중국몽’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도달되기 이전에 출현하였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물론 국가의 지시나 혹은 어떠한 계획 속에서 영화 <백은제국>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중국의 꿈이 공식적으로 문장화되기 이전에, 이미 중국 내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상을 하고 있었다는 시대의 흐름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 그것은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중국이 세계제패의 꿈을 꾸는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화 <백은제국>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담론화하기 위한 중화민족 부흥에 부응하는 이미지들로 화면을 꽉 채운다. 그것은 중화민족이 부흥할 때 그들이 어떠한 이상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뿌리 깊은 생각들에 대한 이미지들이다. 그곳에는 유교와 은본위제 등 고대 중국을 대변하는 ‘중국적인 것’들이 대거 출현한다. 이러한 고대 시간성을 가진 중국적인 것들을 이상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중국인들에게 누적되어 온 ‘고대’ 유물에 대한 애착증 혹은 과거 편집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치 공자가 늘 ‘주나라로 돌아가야 한다.’⁵⁾하고 유토 피아를 과거에 두고 지속적으로 과거지향형 가치관을 설파하던 그 모습 그대로 지속되는 인상을 준다. 중국이 역대로 버릴 수 없었던 그 한 가지는 바로 이러한 미래 시간을 지속적으로 과거로 돌리려는 것이다.

또한 영화 <백은제국>에서 보이는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지는 지독한 유교 가부장제는 그렇게 2009년 현재의 중국이 바라보는 ‘새로운 질서(new

5) <논어 팔일편(論語 八佾篇)>에 보면 “공자가 말씀하셨다. 주나라는 위의 두 나라(은과 상)를 모범삼았으니 찬란하였도다! 나는 주나라를 따르겠다.(子曰: “周監于二代, 郁郁乎文哉! 吾從周.)”라고 하였다. 본문은 <인터넷 논어>에서 가져왔다.

<http://www.lunyu8.cn/2/by/>

order)’의 구체적인 이미지화들의 총체이다.

2. 중국 꿈들의 이미지화

영화 <백은제국>은 중국이 꾸는 꿈들을 일찌감치 신경증적으로 이미지화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간헐’ 사함원과 은본위제를 뜻하는 ‘위안바오(元宝)’가 은회색으로 화면을 채우고 있다. 그것은 앞서 지적한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와 긴밀하게 떠오른다. 금색을 상징하는 금본위제 미국경제를 대신하는 ‘은색’ 중국경제는 그렇게 색채로 화답한다.

1) 은색 세계

고대 중국에서 ‘은’이 장식용품으로가 아닌 화폐단위로서 통용된 것은 북송과 남송시대부터이며, 명대와 청대에 와서는 공식적 화폐가 되었다. 그보다 후대인 원대에는 본격적으로 은이 공식적인 금융 유통단위로 통용되었고, 명대와 청대에 와서 ‘은’은 고대 중국 제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 근간이 되었다⁶⁾. 중국의 도자기와 기타 향료들을 사들이기 위해 유럽은 남미의 은을 캐서 이곳 중국으로 운반하였고, 명대 남중국에는 포르투갈을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들이 불법적으로 무역을 중개하거나 점거함으로써 은본위제는 더욱 확고하게 명청시기를 아우르는 대표적 금융유통을 이루고 있었다.

광물인 ‘은’은 명청시기 또 다른 장치로 활용된다. 그것은 은색과 비슷한 색채인 은회색으로 점철되는 도시 성벽이다. 높다랗게 쌓여진 은회색의 도시 성벽은 안과 밖을 구분하고 경계를 나눈다. 영화 <백은제국>에는 은회색 성벽바깥에 거주하는 일반 농민들의 생활 속에는 돈을 상징하는 은회색이 없다

6) JIN XU(徐 瑾), *Empire of Silver: A New Monetary History of China*, Translated by STACY MOSHER, Yale University, 2021, 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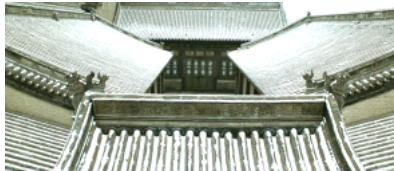


그림 2 은색지붕과 폐쇄 이미지

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철옹성과 같은 은회색 벽은 닿을 수 없는 금융벽과도 같이 작동하게 된다. 전혀 개방적이지 않은 중국의 고대 건축물인 사합원은 이러한 폐쇄적인 성격과 매우 맞닿아 있다.

고대 중국 건축물은 '천원지방(天圓地方)'이라고 하여 땅은 반드시 네모나게 생겨야만 마땅했다. 영화 <백은제국>을 통틀어 보게 되면, 성벽보다 더욱 폐쇄적인 지점이 바로 사합원의 기와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와들은 자연의 재해로부터 단단히 보호 작용을 하는데, 이 회색 기와가 덮혀있는 공간속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일반 서민들은 길거리에서 누워 있거나 무방비 상태로 떠돌아다닌다. 사실 영화 <백은제국>에서 네모난 것들은 은회색과 더불어 부유함을 상징하고 있다.

영화 전반에 보이는 은색 위안바오와 은회색 성벽, 하얀 눈이 덮힌 은회색 기와들은 모두 농민으로 대변되는 황색과 대비된다. 은색은 다른 의미로 '타고 남은 재'와 같은 색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여기서 은색은 빛나는 보물로서가 아니라, 폐쇄된 세계 안에서 그 생명을 다한 영광의 잔해에 해당한다. 쉬진은 중국 화폐의 은행 불가능성은 중국 지폐 시스템의 실패로 이어졌고 중국은 은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⁷⁾고 지적한다. 쉬진의 의견대로라면, 명청시기에 중국이 은을 금융단위로 선택한 것은 결과론적인 상황인데, 마치 그것이 원인인 것처럼 과대 포장되거나 혹은 잘못 인식된 것이다. 결국 은색은 은색일 수밖에 없었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것을 과거 중국 영광의 상징으로

7) JIN XU(徐 瑾), *Empire of Silver: A New Monetary History of China*, Translated by STACY MOSHER, Yale University, 2021p.35 쉬진은 지폐를 사용하는 은을 사용하던 중국 전근대 화폐 시스템의 핵심 중 하나는 '은행화'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송대의 지폐시스템이 민간에서 국가로의 은행시스템이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송나라는 은본위제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한다. 심지어 쉬진은 '은'은 어떤 의미에서 은은 중국의 금융 후진성을 상징한다고 말한다.

여긴다. 영화 <백은제국>에서도 은색은 영광을 상징하는 색채처럼 제시된다. 이것이 중국이 과거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정신 승리병이다.

2) 돈과 땅

영화 <백은제국>에는 캉라오예(康老爺)를 비롯한 상인 무리 남자들이 관우(關羽)를 사당으로 모셔 제사를 지내는 것이 등장한다. ‘돈’은 여기서 경제적 근본을 말하며 고대 중국의 상업이 발달한 중심에 있는 바로 그 상품의 교환 단위를 말한다. 영화 <백은제국>에서 ‘돈’은 물론 은 위안바오(元寶)로 상징된다. 영화 속에서 은 위안바오는 관우공처럼 높이 떠받들어져 모셔지기도 하고, 땅속에 유교적 이데올로기인 ‘인(仁)’과 같은 매우 정신적인 이상을 그리는 가치들과 함께 그 위치가 부여되기도 한다. 고대 중국이 왜 자본주의로 발전할 수 없었는가와 같은 문제들은 바로 이러한 것과 상관성을 갖는다. 여기에는 두 가지 지점을 동시에 사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 가지는 보이지 않는 ‘돈(의 유통)’이라는 측면을 보이는 ‘사물’로 숭상한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숭상의 사물로 변환 ‘돈’이 사회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유교 이데올로기와 동일시되어 ‘가치’를 부여받는다는 것이다. 즉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중국인들은 ‘돈’을 물질적인 사물로 취급하면서 동시에 정신적인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특별한 유한 계층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제한되고 신성한 것으로 여긴다.

매우 모순되는 것은 고대 중국에서 ‘돈’은 상품과 상품의 중간 교환체계로서의 화폐단위로서만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중간 교환체계인 ‘돈’이 ‘+α’되는 증식의 지점이 형성되지는 않았다는 것에서 드러난다. 홍호평은 브로델(Fernand Braudel)의 이론에 기대어 시장과 자본주의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⁸⁾. 고대 중국에는 뛰어난 금융화폐유통 시스템이 있었음에도

8) 홍호평, 위의 책, p. 33

불구하고, 자본주의로 발전할 수 없었던 원인에 국가나 기업의 잉여가치추구 부재가 있었다. 영화 <백은제국>에서는 청대 염상들이 많은 부를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이유들이 모두 건조하게 조명된다. 쉬진은 이러한 모순점이 바로 고대 중국이 금융에 대해 지녔던 전근대적인 부분이라고 지적한다⁹⁾. 이러한 전근대적인, 즉 과거의 모순된 중국 금융구조는 영화 <백은제국>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주판알이미지로 대변된다. 영화 속에서 커다란 주판은 특별히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산수셈법은 디지털화된 지금의 금융 세계와는 완전히 대별된다. 이것은 매우 시대착오적 방법이다. 과거의 고대 중국이 가진 금융시스템이 매우 훌륭하게 조명되는 이미지들 이야말로 '변화'의 지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과거에 집착하는 어둔한 모습이다. 그것은 과거의 '영광'에 해당하지만 역시 '부흥'의 지점과 확실히 오버랩될 수 있다. 그것이 현재 중국이 꿈꾸는 '부흥'의 지점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이유이다.

영화 <백은제국>에서 은으로 만들어진 위안바오는 대상화된다. 이것은 고대 중국인들이 화폐를 '사용'하며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돈 그 자체에 강력한 권위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화 <백은제국>에서 중국인들의 돈에 대한 관념은 여전히 그 주체자인 '사람'과 같이 인격이 부여되며, 공포의 대상 혹은 존경의 대상이 되어 버린다. 따라서 그것은 Kangxi 집안이 대를 이어 받들어 모셔야 하는 대상화된 '신'으로 대체된다.

한편 주인공 Kangxi(康熙)는 고비사막으로 떠나며 집안에서 상징적으로 여기는 300만냥을 찾아 나선다. 마틴 자크는 중국이 고대부터 토지 확장에 신경을 쓴 반면, 해양 진출에는 뜻이 없었다고 지적¹⁰⁾한다. 가령 명대 정화(鄭和)의 업적은 계승되지 않았으며, 땅을 '정복'하듯이 물건 너 땅을 지배하려는 욕심은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마틴 자크 같은 경우, 중국이 전통적으로 땅 정복을 주요한 권력의 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9) JIN XU, 위의 책, p. 35-36

10) Martin jacques, 위의 책, p. 390- 394

영화 <백은제국>에 나오는 고비사막은 이러한 무한정 넓은 중국 땅을 이미지화한다.

소위 말하는 ‘천하주의(天下主義)’는 ‘하늘’이 주가 아니고, ‘천하’ 그러니까 ‘땅’이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오팅양은 <천하: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사이에서(天下:在理想主義和現實主義之間)>에서 천하체계의 보편적 질서체계가 가지는 특성 중 하나를 ‘내부화’로 꼽는다¹¹⁾. 그는 갈등과 모순은 밖으로 향할수록 극도의 대립을 야기하지만, 내부로 향할 때 조화를 이루며 상호간에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자오팅양은 고대 중국의 통치 질서인 ‘천하’는 바로 그 확장을 안으로 넓히는 것이라고 말한다. 홍호평 역시 고대중국을 ‘농경위주의 내향적인 제국’으로 묘사¹²⁾한다. 여기서 지적된 것은 역시 고대 중국 제국이 향하는 ‘내향적’지점이다. 자오팅양과 홍호평이 바라보는 땅을 위주로 한 내향화된 중국의 정치 시스템은 쉰진(徐瑾)에 의해 다르게 읽힌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내부화된 땅위주의 확장시스템은 중국의 허약한 왕실 재정의 근본적 원인이 된다. 그는 프란시스 후쿠야마(Francis Yoshihiro Fukuyama)의 이론을 근거로, 중국의 후진적인 정치는 바로 재정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관리인 없이 황제 1인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긴 불균형적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한다¹³⁾. 2017년 시진핑은 제 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회에서 ‘신시대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천명하면서, ‘화해’를 강조한다. 이것은 자오양팅이나 홍호평에게 지적된 땅 위주의 중국 천하라는 이데올로기가 가지는 ‘내부화’에 가장 필요한 조건들이다. 중국어 ‘화해(和諧)’는 영어로 ‘harmony’이다. 땅위주로 확장되는 내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화해’이다.

영화 <백은제국>에서도 이 장면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은회색 철옹성 바깥에서 일하는 농민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전혀 받지 못한다. 그들은 땅

11) 趙汀陽, 「天下:在理想主義和現實主義之間」, 『探索與爭鳴』, Vol. 1, Issue (9), 2019, p. 106

12) 홍호평 지음 하남석 옮김, 『차이나붐』, 글항아리, 2021, p. 42

13) JIN XU, 위의 책, p. 20-23

과 가장 가까운 생산력을 지닌 사람이지만, 정작 그들의 손에는 교환수단인 '은'이 없다. 성안에서 선별된 하얀 옷을 입고 중국 남자아이들이 무술을 시연하는 장면은 성 밖에서 구더기 들끓는 살을 노출하고 죽어가는 돈이 없는 농민들의 자녀들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즉 여기서 말하는 '내부화'는 은색 세계안으로 들어온 선별된 자들에 한해서 적용된다. 이런 상황에서 '화해'라는 것은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이들을 실질적으로는 배척하는 상황에 대한 포장인 셈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 내부화가 가지는 후진적인 사고방식이다. 그것은 '권력을 어떻게 경계짓고, 관리하고, 길들일 것인가'의 문제이다. 쉬진은 고대 중국이 은 보유라는 경제적 풍요를 이루면서도 결국 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이러한 후진적인 국가 경영방식에 둔다. 즉 쉬진은 '은' 그 자체가 유통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는 오히려 국가 체제가 시스템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주목한다. 영화 <백은제국>은 이런 부분은 간과한다. 영화 <백은제국>은 빛나는 '은'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으로 대변되는 고대 중국의 부유했던 지점만을 보고 싶어 한다. 영화 이미지로 노출된 국가 체제의 금융시스템은 오히려 역으로 읽히기도 한다. 마치 부유한 상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혜를 베풀며 '인'이라는 유교적 마인드가 이들을 화해하는 듯이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이미지가 읽히도록 만드는 것은 분명한 왜곡이다. 은색으로 대변되는 회색벽은 화해될 수 없는 이들을 나누고 있다. 은색은 근본적으로 차별을 가져오는 중국 고대의 돈의 위력을 드러낸다.

3) 타자인식과 전환

원래 '타자(the others)'라는 개념은 유럽 현대 철학에서 등장한다. 그것은 '자아' 바깥에 있는 열등한 존재이다. 이러한 개념이 유럽에서 싹틀 무렵 지구 반대편 청나라에서는 본인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그들의 시선에서는 서양이 바로 '타자'였다. 영화 <백은제국>에서는 그것이 여성과 결합한다.

여기서 여성들은 길거리에 회색 바지를 입고 있는 남성들과 대비되게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거나 모자를 쓰지 않은 중국남자들 보다 더 높게 보이도록 화려한 장식의 모자를 쓰고 있다. 이것은 남성위주의 청대 제국 이미지와 매우 대비된다.

영화내에서 남성위주의 청대제국이 타자를 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보인다. 하나는 ‘폭력’이다. 또 하나는 ‘사랑’(혹은 연모)이다. 이 두 가지는 사실상 고대 중국의 남성가치관을 그대로 드러내는 지점이자 동시에 변모의 가능성이 된다. 먼저 아버지 세대인 캉라오예(康老爺)에게 여자는 대를 물려줄 아이를 생산할 자로만 보인다. 영어를 할 줄 알고 서양교육을 받았다 해도 여자라면 무조건 후세를 낳아주어야만 한다. 영화에서는 캉라오예가 그의 두 번째 부인인 두취칭(杜筠淸)이 자살했다고 위장하고 그녀를 연인인 아들 라오쓰에게 보낸 것 역시, 라오쓰가 그녀를 통해 후세를 낳아야 한다는 일념이었다. 따라서 캉라오예는 두취칭에게 폭력을 가한다. 그것은 집안기업을 이어받을 아들이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캉라오예가 취해야 할 태도였다. 하지만 반면 캉라오예의 아들인 캉라오쓰는 그녀를 사랑한다. 물론 캉라오쓰 역시 처음에는 여성을 그의 취미 생활에 필요한 ‘도구’ 정도로 여겼다. 그런 캉라오쓰에게 다가온 두취칭은 여성을 다르게 대하도록 만든다. 그녀를 사랑하고 서양 음악을 같이 들으며 함께 있고 싶어한다. 그것은 대를 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는 전혀 다른 지점에 있다. 일면 캉라오쓰는 하얀 드레스와 긴 머리의 그녀에게 선망을 느낀다. 그것은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미완성으로 끝난다. 마치 서양과 완전히 행복한 결말을 낼 수 없었던 청말 제국의 운명처럼 말이다.



그림 3 영화<백은제국>내 서양'여성'과 중국'남성'의 이미지 격전

영화 <백은제국>에서 보이는 열등한 자로서 중국 바깥의 사람들은 청대 제국의 시각에서 분명히 '타자'이다. 하지만 그 타자들을 부러워하고 사랑하는 순간, 그 위치는 전환된다. 중국의 아편전쟁은 바로 그런 전환의 순간이었다. 단순히 서양의 군사력에 패배를 당한 것이 아니라, 서양이라는 타자를 부러워하고 사랑하는 순간 그들은 위치상 아래에 처하였다. 그리고 이 순간 '가운데(中)' 위치하던 고대 중국은 바깥으로 밀려난다. 어쩌면 시진핑의 중국몽이 꿈꾸는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것은 이런 밀려난 중국의 위치를 중심으로 이동하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영화 내에서는 타자로 대변되는 두쥐칭 역시 라오쓰를 사랑하는 데, 이것이 위치전환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캉라오예가 그녀를 자신의 아들인 라오쓰에게 보내주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를 전혀 다른 위치로 전환시킨다.

사실 이 문제는 '중국 대 서양'이라는 경계의 문제를 재고하게 만든다. 그것은 곧 권력의 문제이다. 영화 <백은제국>에서 보이는 중국으로 대변되는 남성들과 여성으로 대변되는 서양이 중국이라는 한 공간에서 만날 때 그 이질적인 문명의 충돌들이 자리하는 것이 보인다. 리첸은 이러한 공간을 '접촉 지역(contact zones)'이라는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는 듯이 보여준다. 사실 그의 의견은 중간자적이지 않다. 그는 일방적으로 서양의 침탈로 묘사된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을 공격하면서 분명히 이 공간에는 서로의 문명이 충돌하고 있었던 것이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문화적 침탈만은 아니라고 밝힌다. 그리고 이어서 그 문제의 중심은 바로 중국이 법도 없는 야만적 나라라고 바라보는 서양인들의 시각에 있다고 말한다¹⁴⁾. 이 시기에도 분명히 중국에는 중국의 법이 있었다. 다만 다른 문명국가인 서양의 법은 유교 이데올로기와 다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조명하지 않았다.

시진핑은 실제로 2012년 중국의 꿈을 가리키면서 분명하게 “법치로 나라를 부흥시켜야 하며, 법치가 강해야 나라가 강하다.(法治興則國興, 法治強則

14) Chen, Li, *Chinese Law in Imperial Eyes*,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6, p.10



그림 4 유교질서와 중화제국주의

國)”¹⁵⁾라고 밝혔다. 중국의 꿈은 철저하게 ‘법치주의적’이다. 그것은 결코 낭만적이거나 혹은 임의적이지 않다. 영화 <백은제국>에서 캥썬집안이 대대로 보유하고 있는 보물은 바자오화(八角花)나무 밑에 있다. 그곳에는 하나의 두루마리

축자가 있고, ‘인(仁)’자가 쓰여져 있다. 유교적 이데올로기는 곧 청대 제국의 중요한 법이다. 그것이 중국적 가치를 더해준다.

실제로 리첸은 “법(국제법 포함)은 현대 서구 제국의 이념과 관행을 형성하고 제국 확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했던 많은 도덕적 문제를 대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¹⁶⁾고 말했다.

3. 꿈- 이미지화 - 실체들

마틴 자크가 말하듯이 중국이 세계 금융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세계 질서(A new world order)’를 구성한다는 센세이셔널한 시각은 2024년 현재에서 보자면 매우 낙관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2012년 시진핑이 ‘중국의 꿈’들을 현실에 안착되고 물질화되어 가시적으로 정착시킨 일련의 ‘중국적 질서’를 골간으로 하는 ‘중화제국주의(Cino centrism)’는 여전히 진단의 필요성이 있다. 영화 <백은제국>에서 이미지화되어 있는 중국인들 특유의 폐쇄적

15) 이 말은 2014년 10월 20일, 중화인민공화국 제 18회 14중전국대회(中共十八屆四中全會第一次全體會議) 중앙정치국 공작 보고(中央政治局工作的報告)에서 나왔다.
https://www.gov.cn/zhengce/2021-01/10/content_5578659.htm?eqid=9e876a4a00021bd500000004648d1c39

16) Chen, Li, 위의 책, p. 13

성격은 중국을 중심에 놓기 보다는, 오히려 고립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영화 <백은제국>에서는 비록 새로 태어난 아들로 중국이 꿈꾸는 새로운 질서들이 유지될 것이라는 희망을 던져주었지만, 가부장적 국가 통치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홍호평은 중국 자본주의가 쇠퇴하고 있으며 이제 막을 내릴 준비가 되어있다고 설파했다¹⁷⁾. 그것은 1990년대 중국이 국제적 유통 흐름 안에서 자본주의 축적에 성공한 이후, 2019년 시작된 코로나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2016년부터 시작된 청대제국을 향한 수도 베이징의 새로운 공간계획들은 베이징을 온통 은회색으로 포장하기 시작했다. 철옹벽은 실제로 2019년에 일어난 감염병 코로나와 함께 중국을 굳게 봉쇄하도록 만든 것들의 물질화된 측면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국 자본이 국제적으로 유통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일련의 정책도 한 몫 하였다. 아마도 여기서 중국은 자체적인 경제력만으로 충분히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여겼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홍호평은 마틴 자크와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취한다. 마틴 자크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 강자로서 중국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았지만, 홍호평은 완전히 반대 시각으로 2008년의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바로 중국의 불균형 경제 상황이라고 본다¹⁸⁾. 말하자면 홍호평은 2008년을 기점으로 세계의 금융 위기와 홍성의 원인 모두가 '중국'에 모두 있다고 본다.

상하이와 베이징등 대도시의 화려한 건물들과 도시 인프라는 중국의 경제력의 표면 효과일 뿐이다.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시장과 자본주의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본 연구가 영화<백은제국>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중국의 자본주의 정점을 이루며 세계가 모두 새로운 경제담론의 주체로 중국 자본주의에 집중할 때, 이미지와 실체들은 '중국꿈'에 더욱 다가가는 희망으로 떠올랐다. 2009년에서 시진핑의 중국몽이 발표되는 2012년까지는 중

17) 홍호평, 위의 책, p. 29, 255

18) 홍호평, 위의 책, p. 39-40

국이 꿈을 꾸기 좋은 최고의 상태였다. 하지만 역시 영화<백은제국>에서 드러나듯이 중국이 가진 과거영광으로의 회귀가 그들의 꿈이 되는 순간 중국 사람들의 고질적인 고대집착병은 ‘부흥’이라는 글자로 압축된다. 시진핑이 중국몽에서 말하는 ‘부흥’은 바로 그러한 정신적 증세가 정치화된 문구이며, 영화 <백은제국>은 그러한 정신병적 증세가 이미지화된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이다.

參考文獻

- Chen, Li, *Chinese Law in Imperial Eyes*,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6
JIN XU, *Empire of Silver: A New Monetary History of China*, Translated by STACY MOSHER, Yale University, 2021
Martin jacques, *When China Rules the World*, the penguin press, 2009
赵汀阳, 「天下: 在理想主义和现实主义之间」, 『探索与争鸣』, Vol. 1, Issue (9), 2019
홍호평 지음 하남석 옮김, 『차이나봄』, 글항아리, 2021

인터넷 사이트

<Time>

https://content.time.com/time/specials/packages/article/0,28804,1946375_1947252_1947256,00.html

<중국제12차전국대회개회문>

<https://www.12371.cn/2013/03/17/ARTI1363484375738111.shtml>

<법치중국건설계획(2021-2025)>

https://www.gov.cn/zhengce/2021-01/10/content_5578659.htm?eqid=9e876a4a00021bd5000000004648d1c39

<인터넷논어> <http://www.lunyu8.cn/2/by/>

Abstract

Chinese dream of 'Cino centrism'

— Focusing on the image of the movie “The Silver of Empire”

Kim, Young Mi

This study focuses on China's international financial order, which has received new attention since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e following year, in 2009, the new China-centered world order was imaged in a very condensed and metaphorical way through the movie “The Silver of Empire.” The images revealed here are full of symbols, such as the silver color symbolizing the silver standard, the closed square structure of the Siheyuan symbolizing the Qing Empire, and the woman representing the seductively approaching West. In 2012, Xi Jinping formalized the Chinese time value that these images would fill nationally through the ‘Chinese Dream’. The movie “The Silver of Empire” is a collection of dreamlike works that were created before China even dreamed of it. There, deep-rooted ‘Cino centrism’ is revealed, with the Chinese people becoming the center of the world and creating a new civilization.

Key words : Cino centrism, The Silver of Empire, Chinese Dream, silver standard, Confucian ideology, rule of law

투 고 일 : 2024. 1. 10. / 심 사 일 : 2024. 1. 15. ~ 2024. 2. 15. / 게재확정일 : 2024. 2. 20.
